



나누다



HOT ISSUE

SIMPAC 전지중 대표이사의  
서울경제 인터뷰 현장

경험을 나누다

사수&부사수 / 막내 연차

마음을 나누다

SIMPAC메탈로이 봉사 동아리  
'심봉사' 활동 현장

가치를 나누다

Special Column

WITH US

SIMPAC 창립 12주년 기념  
'2013 한마음 전진대회' 개최



마음을,  
경험을,  
희망을 나누다

SIMPAC과, 행복을, 꿈을,  
세상을, 우정을

멋진 경치를 감상하거나 맛있는 음식을 먹고 있을 때 사람들은 행복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 행복을 공유 할 누군가와 함께 한다면 더욱 큰 기쁨이 되지요. 반대로 힘들고 지칠 때 혼자 고민하기보다는 마음 열고 이야기 나눌 상대가 있으면 그 무게가 한결 가볍게 느껴집니다. 하나보다는 둘이 좋고, 둘 보다는 셋이 좋은 것. '행복은 나누면 배가 되고 슬픔은 나누면 반이 된다'라는 말이 틀리지 않은 듯 합니다. 붉게 물들어 가는 가을날, 푸른 하늘 아래 자연의 정취를 함께 즐길 친구, 연인, 가족들과 함께 하고 있나요? 바쁜 일상 속에 짬을 내어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에게 마음을 담은 메시지를 전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함께 해주어 고맙습니다. 당신이 있어 든든합니다."라고요.

2013 SIMPAC STORY AUTUMN VOL. 24

04 Hot Issue	SIMPAC 전지중 대표이사의 서울경제 인터뷰 현장
08 경험을 나누다	사수&부사수 / 막내 연차
18 마음을 나누다	SIMPAC메탈로이 봉사 동아리 '심봉사' 활동 현장
22 가치를 나누다	Special Column
26 Best Partners	SIMPAC홀딩스 ENG부문과 고려용접봉(KISWEL)
30 차 한 잔 나누며 Talk Talk	SIMPAC 생산팀과 SIMPAC홀딩스 ENG부문 생산팀의 만남
34 With Us	SIMPAC 창립 12주년 기념 '2013 한미음 전진대회' 개최
38 SIMPAC패밀리	SIMPAC메탈 전기로 B조 이현진 조장 가족
42 SIMPAC NEWS	SIMPAC 소식
46 다른그림찾기	다른그림찾기
47 Letter from SIMPAC인	당신을 칭찬합니다
47 우리들의 게시판	축하합니다



SIMPAC STORY 2013년 AUTUMN | 통권 24호 | 발행인 최진식 | 발행일 2013년 10월 28일 | 발행처 (주)SIMPAC홀딩스 02-3780-4907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4-1 심택빌딩 13층 | 기획 (주)리큐더스 02-6011-2000 | 편집 및 디자인 (주)리큐더스 02-6011-2000 | 인쇄 삼진피앤씨

**사보담당자**  
 (주)SIMPAC홀딩스 이승훈 대리 02-3780-4906 gausy@simpac.co.kr  
 (주)SIMPAC홀딩스 정제린 대리 032-590-2020 jljung@simpac.co.kr  
 (주)SIMPAC 김학중 대리 032-510-0033 hjkim@simpac.co.kr  
 (주)SIMPAC메탈로이 선광규 054-271-8724 kgsun@simpac.co.kr  
 (주)SIMPAC메탈 강승삼 041-360-0124 sskang@simpac.co.kr





더 넓은 시장,  
더 큰 성장을 위한

# SIMPAC의 도전은 계속됩니다

지난해 국내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며 대한민국 대표 프레스 메이커로서의 입지를 더욱 굳히고 있는 SIMPAC. 매출액 역시 2,239억을 달성하고 평균 영업이익을 13%로 유지하며 침체된 경기 속에서도 꾸준한 성과를 내고 있다(회계연도 2012년 기준). 이것을 가능하게 한 SIMPAC만의 경쟁력은 무엇일까.

## SIMPAC 전지중 대표이사의 서울경제 인터뷰 현장

지난 9월 17일, 인천 부평의 SIMPAC 사옥에서 전지중 대표이사와 서울경제 기자의 인터뷰가 진행되었다. 추석연휴를 하루 앞둔 터라 여유로운 분위기가 감도는 가운데 시종 편안한 웃음과 대화가 오갔다. 이날 전지중 대표이사는 SIMPAC의 성장 전략과 미래 비전을 조목조목 설명했다.



**SIMPAC의 강점을  
꼽는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SIMPAC은 1973년 설립 이래 프레스만을 전문적으로 생산해 온 대한민국 대표, 프레스 제조 기업입니다. 꾸준한 품질과 서비스로 지난 40년 동안 고객들로부터 신뢰를 받아왔지요. 특히 전자나 자동차 산업분야 쪽의 여러 메이저 기업들(삼성전자, LG전자, 기아자동차, 쌍용자동차 등)의 1차 협력사와 거래해 온 레퍼런스가 영업 활동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줄곧 시장 점유율 상위를 차지할 수 있었던 것은 이러한 모든 요인들이 함께 작용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프레스는 주요산업 공정에 반드시 필요한, 뿌리 역할을 하는 장비입니다. 금속이 존재하는 한 프레스에 대한 수요도 계속된다고 할 수 있지요. 때문에 경기 흐름에 크게 흔들리지 않는 것도 강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프레스 제조 산업의 진입장벽 자체가 굉장히 높기에 시장 경쟁에서 유리한 부분도 있고요.



**프레스 시장의 미래는 어떻게 보십니까?**

**A** 향후 수요 확대가 예상됩니다. 우선 3-4년 내 중국 쪽 자동차 생산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합니다. 이를 대비해 SIMPAC도 현지 마케팅에 주력하고 있는데, 이미 4개의 법인을 개설해 운영하고 있으며 SIMPAC 직원과 현지인이 함께 근무하면서 빠른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수요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 러시아, 브라질,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의 신흥경제국과 관세가 낮은 미국 및 멕시코의 시장 전망도 밝습니다. 앞으로 SIMPAC은 가능한 모든 해외영업팀 팀원들을 파견해 현지 고객들과 직접 만나며 접점을 유지해나갈 예정입니다. SIMPAC은 또한, 2010년부터 지난 3년간 약 300억 원을 설비에 집중 투자해 대형프레스 제조 환경을 확충하였습니다. 사업 확대를 적극 이뤄나가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SIMPAC이 프레스를 수출하고 있는 곳은 미국, 중국, 인도, 멕시코 등 50여 개국. 전 세계 산업현장에 프레스를 통해 SIMPAC이라는 이름을 널리 알리고 있는 셈이다. 2004년에 SIMPAC 해외 영업팀에 입사, 2011년 대표이사에 취임한 전지중 대표이사는 앞으로 더욱 발전하는 글로벌 프레스 메이커 - SIMPAC이 될 수 있도록 세계 시장을 향한 항로를 정비하고 있다.

**A** 어릴 적부터 해외영업을 평생 업으로 삼아 살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때문에 대학에서도 무역학을 전공했고요. 1988년 제일모직 이태리 법인에 주재원으로 나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직물영업을 했고 SIMPAC에 몸담고 있는 지금은 기계영업을 한다는 차이점만 있을 뿐 해외영업이라는 길을 꾸준히 걸어온 셈입니다. 그간의 경험을 통해 영업이라는 분야에 대해 나름 깨달은 점이 있다면 사람을 만나는 일이란 국적에 관계없이 지속적인 관계 유지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1년에 15-20차례는 출장을 나가 직접 고객들을 대면하고 이야기를 나누며 그들이 제품과 서비스에 대해 원하는 것을 파악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A** 프레스는 한 번 투자하면 20-30년을 써야 하기 때문에 내구성이 중요합니다. 장기간 불편 없이 사용하기 위해서는 서비스도 적절하게 제공되어야 하고요. 그렇기에 SIMPAC은 단순히 장비를 판매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레이아웃 설계와 설치 및 조립, 그리고 사후 관리까지, 톨키(Tum key) 방식의 종합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 만족을 극대화하려 합니다. 품질은 기본이고 서비스 경쟁력은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반드시 확보되어야 할 부분이니까요.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에도 SIMPAC이 프레스 시장의 우위를 지키기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큰 성장을 위해 향후 3-5년 동안 Total Service Provider로서의 노력을 집중할 것이라는 전지중 대표이사에게 SIMPAC이라는 조직에 있어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무엇인지 물었다. 그는 다른 것 보다 '부서간 소통'을 우선으로 꼽았다. 부서를 막론하고 정보 공유가 신속하게 이뤄진다면 유연한 대응이 가능해지며 결국에는 타사와의 큰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다. 변화를 원한다면 작은 것부터 충실히 해야 한다는 그의 신념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었다. 기본에 충실하여 국내시장에서 오랫동안 신뢰받아 온 SIMPAC. 그 변치 않는 품질처럼 SIMPAC이라는 이름 역시 전 세계 곳곳에서 믿을 수 있는 글로벌 브랜드로 명성을 얻으리라 예상한다.



**경쟁력 확보를 위해 주력하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해외영업에 있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 경험을 나누다

하나의 목표를 향해 정진하는 일터에서 서로를 믿고 따르는 끈끈한 관계의 사수 & 부사수, 그리고 막내 연차들의 열정 가득한 모습처럼 보기 좋은 것도 없다. 바쁘게 돌아가는 일상 속에서 의지할 수 있는 누군가가 있다면 힘들거나 지칠 때 큰 힘이 되지 않을까? 회사마다 내로라하는 사수 & 부사수, 그리고 팀의 막내들을 만나보았다.



- 01. 야무지게 손발을 맞추는 사수 & 부사수  
SIMPAC 메탈로이 생산팀 전기로 C 조 김삼철 선임과 김성민 사원
- 02. 믿고 따르는 참석궁함 사수 & 부사수  
SIMPAC 생산팀 공무파트 김재권 조장, 이성은 사원
- 03. 함께 커가며 꿈을 펼치는 당찬! 막내들  
SIMPAC 메탈로이 기술연구소 심성보 사원과 정련반 강진수 사원

## 야무지게 손발을 맞추는 사수&부사수

SIMPAC메탈로이 생산팀  
전기로 C조 김삼철 선임과 김성민 사원

# 1



SIMPAC메탈로이 공장에서 끊임없이 뿜어 나오는 쇳물의 열기만큼 열정 가득한 SIMPAC인들이 있다. 쉴 새 없이 쇳물을 뽑아내며 출탕을 담당하는 SIMPAC메탈로이 생산팀 전기로 C조, 김삼철 선임과 김성민 사원이 바로 그들이다. 같은 조에 소속되어 선임과 사원으로 손발을 맞추는 두 사람과 잠시 차 한 잔의 여유를 나눠 보았다.

웃는 얼굴의 김삼철 선임은 13년째 현장에서 근무해 온, 그야말로 잔뼈가 굵은 인물. 선한 인상의 김성민 사원은 입사 3년차로 늘 자상하게 이끌어주는 김삼철 선임을 잘 따르며 호응을 맞춰 왔다.

처음 만났을 때 상대에 대한 인상은 어땠는지요, 또 지금은 어떤 느낌인가요?

김삼철 선임 : 김성민 사원이 입사했을 당시에는 적응을 잘할지 걱정했습니다. 신입사원이라 하나에서 열까지 차근차근 가르쳤는데 적응이 빠르고 일 처리 능력도 뛰어났습니다. 또 현장에서 부상이 있어선 안되므로, 안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성격이 차분해서인지 늘 안전수칙을 준수하면서도 신속하게 업무를 습득하였고요. 게다가 밝고 붙임성이 있어 동료들과 잘 어울리니 여러 가지 면에서 장점이 많은 친구입니다.

김성민 사원 : 김삼철 선임님을 처음 만났을 때에는 인상이 날카로워 보여 차가운 성격이지 않을까 했는데 지내다 보니 항상 웃고 따뜻하게 챙겨주는 자상한 성격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또 무슨 일이든 솔선수범하며 본인이 먼저 행동으로 모범을 보여줍니다. 배울 점이 많고 격려도 해주는 형님 같은 분이네요.

'부사수가 업무를 제대로 습득하고 있구나!' 하고 느낄 때는 언제인가요?

김삼철 선임 : 출탕 시 쇳물을 제대로 받아야 하는데, 옆으로 쇳물이 새거나 흐르면 신속하게 수습해야 합니다. 얼마 전 이런 사고가 있었을 때 김성민 사원이 빠르게 독을 쏟고 다른 곳으로 번지지 않도록 조치해서 무사히 막을 수 있었습니다. 또 아무도 다치지 않도록 안전하게 처리하는 모습이 매우 든든했습니다. 사고는 뒤처리를 제대로 못하면 위험해지기 쉬운데 워낙 일 처리를 깔끔하게 해서 다른 조가 "손 볼 게 별로 없네."라며 칭찬할 때에는 사수로서 참 뿌듯하지요.

'역시 우리 사수구나!' 하는 생각이 들 때는 언제인가요?

김성민 사원 : 현장에서 일을 하다가 돌발 상황이 생길 때 선임님은 항상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일을 처리합니다. 그런 믿음직한 모습에서 늘 본 받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도 나중에 선임이 되면 후임들에게 모범을 보여줘야겠다고 다짐합니다.

업무에 차질이 생겼을 때 해결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김삼철 선임 : 현장에서는 안전사고가 가장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거의 사고가 일어나지 않지만 일단 발생한다면 혼자 처리하는 게 아니라, 동료들의 의견을 들어보려 합니다. 독단적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여럿이 머리를 맞대고 최선의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죠.



김성민 사원 : 함께 팀을 이뤄 일하기 때문에 이야기하듯 것처럼 다양한 의견을 종합, 더 나은 방법을 찾도록 합니다. 선임님은 고참이라고 독단적으로 결정하지 않고 늘 후임들의 생각을 물어보고 그를 존중해 줍니다. 의견을 조율하면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죠.

김성민 사원 : 처음 입사했을 때의 각오와 긴장감을 잃지 않고 언제나 열심히 일하는 것이 제가 해야 할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안전사고 없이 업무를 수행해야 하고요. 개인적으로는 평범한 가정을 꾸리고 싶은 작은 소망이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이나 소망이 있다면 들려주세요.

김삼철 선임 : 제 신조는 '다른 사람보다 내가 한 번 더 움직이자'입니다. 그래서 현장에 위험을 주는 요인은 없는지 이곳 저곳 살펴보고 있습니다. 선임으로서 제가 해야 하는 역할이기도 하고요. 동료나 후임들에게 모범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서훈에 대한 바람이 있다면요?

김삼철 선임 : 저를 뛰어넘는 훌륭한 SIMPAC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본인 소망대로 어서 장가가서 예쁜 아기도 낳고 행복한 가정을 꾸렸으면 좋겠어요.

김성민 사원 : 선임님이 지금보다 살이 더 쯤으면 좋겠습니다. 체력이 있으면 체력도 더 좋아지지 않을까요?(웃음) 늘 건강하시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 믿고 따르는 찰떡궁합 사수&부사수

SIMPAC 생산팀  
공무파트 김재권 조장, 이성은 사원



### 부사수가 발전할수록 사수의 성취감도 커져

어느 회사나 선임과 후임은 멀고도 가까운 사이. 후임에게 선임은 존재 자체가 쉽지 않은 상대이고, 선임 역시 후임을 마냥 편하게만 대할 수도 없다.

그러나 SIMPAC에는 큰 형님처럼 자상하면서 꼼꼼하게 이끌어 주는 선임, 막내 동생처럼 똑 부러지게 따라오는 후임이 있다고 하여 만나 보았다. SIMPAC 생산팀 공무파트 김재권 조장과 이성은 사원이 바로 그 주인공. 화창한 10월의 어느 날, 두 사람은 사수와 부사수 입장에서 자신의 경험을 허심탄회하게 나누었다.



각자 현재 맡고 있는 업무가 무엇인지  
설명해주세요.

**김재권 조장** : SIMPAC 생산팀 공무파트는 현장의 모든 설비에 대한 관리 업무를 총괄합니다. 크레인, 전동 공구 등의 설비를 유지, 보수하며 안전 관리에 만전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는 조장으로서 이러한 업무들을 책임지고 이끄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올해로 입사 10년차이며, 내일 있을 창립기념일 행사에서 10년 근속상을 받게 되는데요, 개인적으로 큰 영광입니다.

**이성은 사원** : 저는 생산팀 공무파트에 신입사원으로 입사해 올해 2년째 근무하고 있습니다. 조장님 말씀처럼 회사 설비의 유지, 보수 업무를 도와서 함께 하고 있습니다. 설비 수리 업무는 보통 2명이나 3명이 팀을 이뤄서 합니다. 지금은 팀의 막내로서 주로 옆에서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두 분이 사수, 부사수로서 인연을 맺게  
된 것은 언제인가요?

**김재권 조장** : 2011년 2월에 이성은 사원이 공무파트에 들어오면서 인연을 맺게 되었고 햇수로 3년째 호흡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올해 1월에 '조장'으로 진급하였고, 현재 총 7명의 공무파트 팀원들과 함께 의기투합해 일하고 있습니다.

**이성은 사원** : 설비 쪽에 문제가 생기면 조장님이 저를 데리고 보수 업무를 하게 됩니다. 설비에서 매우 중요한 '설비 고장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것이죠. 설비가 잘 돌아가야 생산성이 올라가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게 하는 것이 저희의 임무입니다. 아무래도 팀 막내이다 보니 조장님으로부터 전기 분야와 크레인 분야에 대해 많은 것을 배웠는데요, 특히 저에게 생소한 분야인 크레인 쪽은 가장 중요한 브레이크 부분이라든가 라인 간격조정, 교체, 안전관리 등에 대해 여러 가지를 배우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부사수가 업무를 제대로 습득하고 있구나!'  
하고 느끼는 순간 언제였나요?

**김재권 조장** : 이성은 사원이 입사한 초기에는 업무가 어렵고 생소하다 보니 종종 힘들어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입사 10개월 차부터 야간 근무에 들어갈 때면 업무 속도가 눈에 띄게 빨라지더니 혼자서도 신속하게 업무를 처리하는 모습을 보면서 상급자로서 흐뭇한 마음이었습니다. 지금도 야간 근무를 같이 하고 있는데, 누구보다 강한 열정을 보이며 나날이 발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수로서 발전하는 부사수의 모습을 보게 되면, 더 큰 성취감을 느끼게 되더군요.

'역시 나의 사수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순간은 언제인가요?

**이성은 사원** : 일을 하다가 막히는 부분이 있으면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면 조장님이 전체 계획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줘 체계적으로 배우게 되니 '역시 조장님이구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처리하라'고 명령하는 것이 아닌, 전체적인 맥락을 그릴 수 있도록 돕기 때문에 내가 어떤 부분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파악하면서 일할 수 있고, 그만큼 업무도 빨리 습득하게 됩니다. 덕분에 일도 순차적으로 순조롭게 진행된다고 생각합니다.

업무에 차질이 생겼을 때 해결하는 방법은 무엇인지요.

**김재권 조장** : 간혹 수리하다가 난관에 부딪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재를 고쳐야 하는데 자재 수급이 곧바로 되지 않을 때도 있고요. 그렇지만 장기간 시간을 들여 고쳐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단 수리를 시작하면 밤을 새워 서라도 끝을 내야 합니다. 크레인의 경우, 한 군데라도 멈춰 버리면 생산 라인이 작동하지 않기에 빨리 해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간단한 수리 업무는 사실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직원들의 '안전'이 관련된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언제나 '안전'을 최우선으로 철저히 하고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성은 사원** : 혼자 일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조장님에게 무전으로 도움을 청하곤 합니다. 그때마다 "일단 내가 해 볼 수 있는데 까지 해봐라!"라는 답을 듣게 되는데요, 이리저리 혼자 연구하다 보면 어느새 답을 찾게 됩니다. 바로 도움을 줄 수도 있지만, 스스로 문제점을 찾고 해결할 기회를 주니 개인적으로 더 발전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이나 포부가 있다면 들려주세요.

**김재권 조장** : 생산팀 공무파트의 인원이 부족한 편이라, 당장은 설비 고장 쪽에 업무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사실 사후처리보다는 예방과 보전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설비 어딘가 소음이 나거나 증상이 보이면 미리 고장을 예방하고 대비해야 하는 것이죠. 공무파트의 인원이 늘어나고 여건이 된다면 이런 사전작업들에 노력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앞으로 우리 공무파트가 나아가야 할 궁극적인 방향이기도 하고요.

**이성은 사원** : 공무파트의 주된 업무가 설비 보전이라 전기, 기계, 유압, 공학, 용접, 배관, 크레인 등 많은 분야를 공부하고 알아야 합니다. 한 마디로 설비 분야의 '맥가이버'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근무한지 3년이 되어 가는데 아직도 부족함을 많이 느낍니다. 더 열심히 공부해서 후임이 들어오면 그동안 배운 것을 가르칠 수 있도록 탄탄한 실력을 쌓는 것이 저의 포부입니다.

김재권 조장님은 체계적으로 배우게 하는 분

이성은 사원은 강한 열정으로 내일이 발전하는 친구

3년째 호흡 맞추는 중



# 함께 커가며 꿈을 펼치는 당찬! 막내들



SIMPAC 메탈로이 정련반 강진수 사원과 기술연구소 심성보 사원

포항에 오니 한 낮의 가을바람이 부드럽게 뺨을 스친다. 11 월의 첫날, SIMPAC 메탈로이에는 포근한 햇살이 가득 비치고 있다. 기분 좋은 활기가 느껴지는 이곳에서 젊은 패기를 지닌, 기술연구소 심성보 사원과 정련반 강진수 사원을 만났다.

한류 스타 '배용준'을 닮은 외모가 시선을 사로잡는 심성보 사원과 강인한 남자다움이 물씬 풍기는 강진수 사원은 각자 하는 일도 다르고 '6 살' 나이 차도 있어 공통점이라고는 없어 보인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SIMPAC 메탈로이에서 만나 이제는 '친구'가 되었다.

### SIMPAC메탈로이에 입사한 것이 내 최고의 선택

심성보 사원이 입사 2년차, 강진수 사원이 1년차로 입사 시기는 몇 개월 차이가 난다. 이들이 SIMPAC메탈로이에 입사하게 된 동기는 무엇일까.

심성보 사원은 “졸업 후 취업을 준비하면서 어디에 입사할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라고 한다. “남들 다 아는 대기업보다는 나의 꿈과 비전을 펼치면서 회사와 함께 커가고 발전할 수 있는 곳에서 일하고 싶었습니다. 고향인 대구에서도 멀지 않은 포항에 있는 SIMPAC메탈로이가 꼭 그런 회사였죠. 또 같은 ‘심 씨’라서 운명이라고 생각기도 했어요.(웃음)”

강진수 사원은 작년 8월에 입사, 포항에 와서 홀로 지내다가 4개월 후 가족이 모두 내려와 함께 정착하게 되었다고 한다. “SIMPAC메탈로이에 입사하기 전에는 다른 일을 하고 있었는데 진로에 대한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 때 한 친척분이 포항에 있는 SIMPAC메탈로이라는 회사가 비전 있는 괜찮은 회사라고 추천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고향인 대구에서 포항으로 내려갈 각오로 지원하였죠. 입사해보니 듣던 대로 발전 가능성이 무궁무진하고 직원 복지 및 시설도 잘 되어 있어 지금도 무척 잘한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 입사 초기, 타향살이의 외로움을 달래고 의지하면서 친해지기

강진수 사원은 “전혀 다른 분야에서 일하다가 SIMPAC 메탈로이에 들어왔는데, 처음에는 업무가 생소해 적응하는데 애를 먹었습니다. 하지만 공장이 무척 깨끗하며 근무 환경 체계가 잘 잡혀있고 주임님, 반장님이 많이 도와줘서 차츰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또 이 일이 저에게 잘 맞는다고 생각해 앞으로도 신입사원의 초심으로 늘 열심히 해야겠다는 각오를 다집니다.”라고 말한다.

심성보 사원은 “신입사원답게 제 전공을 살려 의욕적으로 모든 일에 도전하고자 합니다. 입사 초기에는 고향을 떠나와 혼자 살면서 힘든 점도 있었는데, ‘세월이 약’이라고 시간이 흐르면서 친구들도 생기고 동료, 선임들이 많이 신경 써줘서 지금 생활에 만족하며 잘 적응하고 있습니다.”라며 웃는다.

두 사람 모두 대구가 고향이라 포항에 오기 전까지 같은 곳에 살았다는 공통점이 있다. 덕분에 입사 초기에 서로 의지하며 타향살이의 외로움을 이겨내면서 부쩍 친해졌다고.



### 더 많이 배우고 노력해서 회사 발전에 기여하고 싶어

두 사람은 팀의 막내로서 짝짝하고 예의 바른 모습으로 신입들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다. 아직 부족한 점은 있지만 젊은 패기로 무엇이든 가능하리라.

강진수 사원은 “신입사원은 뭐든지 하나라도 더 배우고 열심히 하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라면서 “나날이 발전하는 SIMPAC인으로서 주어진 일을 완벽하게 해나가겠습니다.”라고 당찬 포부를 밝혔다. “항상 먼저 인사 하고, 작은 일부터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이겠습니다. 청소나 정리정돈 등 사람들이 신경 쓰지 못하는 부분까지 꼼꼼히 살피면서 말보다 행동으로 실천에 옮기겠습니다.”



심성보 사원도 각오를 다졌다. “늘 밝은 표정으로 근무하려고 하는 점을 주변에서 좋게 봐주는 것 같습니다. 회사에서는 동료, 선임들과 함께 하는 시간이 많은데 되도록 먼저 웃으며 다가가려고 노력하면 원만하고 즐거운 직장 생활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즐겁게 일하면 그만큼 일의 능률도 오를 것이라 생각합니다. 긍정의 에너지를 가진 SIMPAC인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더 많이 배우고 노력해서 회사 발전에 기여하고 싶다는 심성보 사원과 강진수 사원. 젊은 열정과 패기로 펼쳐갈 그들의 앞날에 힘찬 박수를 보낸다.

# 마음을 나누다 - SIMPAC메탈로이 봉사 동아리 '심봉사' 활동 현장



## 봉사에 눈먼 당신, **심봉사** 에게 오라

용광로 같은 계절이 지나가고 선선한 바람이 스며드는 가을날,  
SIMPAC메탈로이의 봉사 동아리 '심봉사(SIMPAC을 사랑하고 봉사를 실천하는 사람들)'가  
나전 복지마을에서 중증 장애우와 함께하는 시간을 가졌다. 베푸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나눔으로써 풍요로운 마음을 얻어간다는 회원들  
이들의 아름다운 마음에 가을 정취가 더욱 아름답게 느껴지는 듯했다.

심봉사 정기활동이 있는 10월 둘째 주 토요일, 포항 남구 장기면에 있는 나전 복지마을을 찾았다. 산책하기에 좋은  
오솔길을 지나 어느 순간 나타나는 고즈넉한 농촌 마을에 나전 복지마을이 위치해 있었다. 현대식 건물에 전통 건  
축 양식을 가미해 나름의 멋을 가진 이곳에서 심봉사 회원들이 오전부터 주변을 청소하고 잡초를 제거하느라 분주  
했다. 심봉사의 이송대 회장은 실내에서 곧 진행될 사물놀이 수업을 준비하는 모습이었다. 그에게 심봉사라는 모임  
과 활동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 봉사하고 싶은 마음의 불씨가 번져 지금의 심봉사로

"심봉사는 지난해 3월에 발족한 SIMPAC메탈로이의 사내 봉사 동아리입니다. 신문에서 '끝전기부'에 관한 기사를 읽  
은 것이 계기가 되었는데요. 끝전기부란 월급의 만 원 미만 단위의 끝자리 금액을 기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때에 따  
라 980원이 될 수 있고, 9,800원이 될 수도 있죠. 몇몇 사람에게 우리도 이런 나눔을 해보자는 제안을 했는데, 평소  
봉사활동에 관심이 있지만 선뜻 나서지 못하던 사람들이 몽치게 되었습니다. 지금의 심봉사가 탄생한 것이죠. 심봉  
사는 'SIMPAC을 사랑하고 봉사를 실천하는 사람들'의 줄임말입니다."

이렇게 출발한 심봉사는 사내 홍보를 하며 회원을 모집했고 마침 협조문을 본 SIMPAC메탈로이 이상일 고문이 식사  
비와 간식, 현수막 등의 지원 사격에 나서며 현재의 동아리로서 자리를 잡았다. 이후 매달 둘째 또는 셋째 주에는 나  
전 복지마을을 방문해 제조 작업, 텃밭 가꾸기, 환경정화 활동 등을 벌이고 있다. 특히 이송대 심봉사 회장은 매주 나  
전 복지마을에서 이곳의 생활인(중증 장애우)들을 위한 사물놀이 수업을 열고 있다고 한다. 앞서 언급된 끝전기부  
를 통해서도 포항에 위치한 무지개 지역아동센터에 매달 50만 원씩 후원하고 있다. 이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달에는  
부족한 만큼 회사에서 지원받아 전달하고 있다.

### 회원은 부족하지만 다들 일당백, 봉사는 스스로 마음에서 우러나와야

"1년 반 동안 심봉사 모임을 진행하고 있지만 가장 어려운 부분은 활동할 수 있는 인원이 적다는 것이지요. 현재 가  
입 회원은 80명이지만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는 인원은 10여 명 정도 됩니다. 사무실 근무나 교대 근무 등의 업무 여  
건 탓에 쉽게 모이지 못하거든요."

이송대 회장은 아직 회원이 부족하지만 지금 구성원들 모두 일당백이라며 동료들을 보며 너털웃음을 짓는다. 그도 그럴 것이 심봉사 회원의 얼굴들이 하나같이 밝고 믿음직해 보인다. 스스로 마음에서 우러나와 하는 일이기 때문에 웃음이 끊이지 않고 즐겁게 시간을 보내는 덕분일까. 평소 필요에 따라 전기 작업과 용접 등 자신이 가진 재능을 직접 발휘하기도 하는 그들은 나전 복지마을에 없어선 안 될 일꾼들이다. 앞장서 더 힘든 일을 시켜달라고 하는 회원도 있다니 그 열정이 대단하다.

“앞으로 SIMPAC인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더 많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하려고 해요. 아무래도 봉사는 자발적인 것이기에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아마 내년에는 지금보다 상황이 나아지지 않을까요? 조만간 함께 할 날을 꿈꾸며 SIMPAC인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함께 장단 맞추며 마음을 나누는 시간**

“땀땀 따따땀, 따따 따따땀”

오전 10시 40분, 강당에는 사물놀이를 하기 위해 생활인들이 모여 기다리고 있었다. 이송대 회장이 팽과리, 북, 징, 장구 등을 하나씩 나눠주니 이내 하나 둘 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머리까지 흔들어가며 신나게 팽과리를 치는 이, 몸은 불편해 보이지만 제법 일정한 속도로 징을 치는 이, 큰 북과 작은 북을 연달아 치는 이, 흥겨워서 무대 위를 뛰어다니는 이, 그리고 모두를 지그시 바라보며 장단을 맞춰보는 이 등, 제각기 표현은 다르지만 다들 이 시간을 기다려왔고 즐거워하고 있음이 분명해 보였다.

어느 순간 이송대 회장이 장구채를 잡고 리드하자, 각자의 소리가 하나의 박자로 맞아들기 시작했다. 장단 변화를 이끌어야 하는 팽과리가 정해진 타이밍을 놓치자 직접 시범을 보여주기도 하였다. 난이도가 있는 별달거리 장단을 할 때에는 팽과리를 맡은 이가 “하늘 보고 별을 따고...” 라고 맡은 부분을 외치다가 쑥스러운 듯 머리를 긁적이자 그 모습을 본 모두 한바탕 웃음을 터트렸다. 수업이 진행될수록 점차 박자가 맞아 들어갔다. 같은 동작을 여러 번 반복하면서 조금씩 지친 기색들이었으나 그 속도는 줄어들지 않았다. 함께 치는 사람들의 눈을 바라보며 서로의 소리 변화에 맞추려 노력하는 손짓, 눈빛, 표정들이 사뭇 진지했다.

사물놀이 수업을 마치고 야외에서 단체 사진을 찍기 위해 밖으로 나왔다. 사진을 찍을 때에도 심봉사 회원 곁에 머물러 있으려는 생활인들을 보면서 그간 함께 한 시간과 마음들을 엿볼 수 있었다. 나전 복지마을 김태희 사무국장은 “SIMPAC메탈로이 심봉사 회원들에게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언제나 힘든 기색 없이 다들 즐겁게 봉사하는 모습이 보기 좋고요. 나전 복지마을과의 소중한 인연이 앞으로도 계속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라고 말했다. 이날 심봉사는 나전 복지마을에서의 활동을 마친 뒤, 무지개 지역아동센터로 이동해 끝내기부로 모은 후원금을 전달하기도 하였다. 황금 같은 주말, 부지런히 움직이는 심봉사의 한 걸음 한 걸음이 참으로 아름답게 느껴지는 하루였다.



“나에게 심봉사란?”

**이송대 (설비반)**  
**나의 힐링이자 안식처**

힘들거나 지칠 때에도, 봉사 활동을 하고 나면 순수해지는 느낌입니다.

**김상협 (전기과)**  
**한 달에 한 번의 설렘**

제가 도움이 될 수 있어서 기분이 좋습니다.

**선광규 (인사총무팀)**  
**쉽표이자, 느낌표**

바쁜 일상 가운데 뜻 깊은 일을 하고 야외에서 쉴 수도 있으니 많은 걸 얻어가네요.

**정진교 (설비반)**  
**박카스처럼 활력소가 되는 것**

지인이 나전 복지마을에 있어서 그런지 더욱 마음이 갑니다.

**전준호 (인사총무팀)**  
**나와 다른 사람이 마음을 나누는 시간**

같은 시대를 사는 사람들과 삶을 공유하는 기회인 것 같아요.

**김희정 (합금촬영팀)**  
**배움**

처음에는 배운다고 생각했는데, 나눔 속에 제가 더 받고 있는 것 같아요.



나눔은 진정성을 갖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뤄져야 한다

기업들의 사회공헌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 2000년대 이전까지만 해도 기업들은 환경, 안전, 나눔 등 사회공헌의 핵심 가치들을 뒷전으로 둔 채 그야말로 '돈 되는' 일에만 매달렸다. 언론이나 사회복지기관이 주도하는 성금 모금에 특정 시점이 되어야 참여하는 게 전부인 시절이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사회 전반적 의식수준이 높아지면서 기업들의 사회공헌 활동도 기업에 대한 호감도를 높이려는 단발의 이벤트성 행사가 아니라 경영전략의 핵심으로 자리 잡아야만 하는 때가 되었다.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사회공헌 활동이 기업의 지속가능한 경영의 필수조건이 되고 있는 것이다. 각 기업마다 전담 조직을 신설하거나, 차별화된 사회공헌 전략을 펼치면서 사회가 요구하는 책무 수준에 준하기 위해 팔을 걷어 부치며 나서고 있다.

이와 같은 시대적 상황 속에서 각 기업들의 의사결정권자들은 사회공헌과 다양한 나눔 활동들이 장기적인 전략 아래 체계적이고 지속적으

# 기업은 왜 더 적극적으로 나누어야 하는가?

- 세계가 주목하는 존경받는 기업들

## 존경받는 기업이 되기 위하여

외국의 저명한 경제전문지들은 매년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발표한다. 포춘은 1982년부터 매년 전 세계의 기업을 대상으로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50대 기업'을 발표하고 있고,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즈도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과 기업인'을 선정하고 있다.

각 매체에서 '존경'이라는 단어를 붙이는 기준은 조금씩 다르지만 기업이 지향해야 할 미래상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 존경받는 기업은 곧 자부심을 느끼게 해주는 기업이다. 관련 업종 종사자들에게는 그 기업에서 반드시 근무해 보고 싶다는 욕구를 불러일으키고, 투자자들에게는 보다 많은 투자를 하고 싶게 만들며, 지역 사회로부터는 고마움을 느끼게 하는 꼭 필요한 존재다. 존경받는 기업은 글로벌 기업들의 공동 목표이기도 하다.

로 이루어지는지 점검해 보아야 한다. 결국 이 모든 활동들이 실제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 진짜 필요한 것은 다름아닌 진정성을 가진 관심과 지속적인 노력이기 때문이다. 단순한 기부나 봉사활동·일회성 행사를 벗어나 지원 대상의 어려움을 근본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맞춤형'으로 변모해야 모두가 상생하는 건강한 사회에 일조할 수 있는 것이다.

## 본질적인 가치를 추구해야 한다

끝없이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결국 변치 않는 본질적 가치를 추구하는 기업들이 오랜 시간 꾸준히 살아남는 법이다. 그리고 그들은 건전한 생각과 가치를 지속적으로 재생산하고 확대해나가며 사회와 함께 발전해간다.

이제는 기업들도 이익을 통해 가치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가치를 통해 이익을 만들어내는 가치경영에 나설 때다. 기업은 사회를 떠나서는 성장할 수 없고, 사회는 기업이 제공하는 혜택과 지원이 필요하다. 서로에 대한 이해와 소통이 기반이 된 진정한 나눔을 고민할 때이다.

피터 드러커는 '21세기에는 자원봉사 활동이 가장 중요한 인류 활동이 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세계가 주목하는 기업들은 저마다 독특한 형태로 '부의 사회 환원'을 실행하고 있다. 최고 경영자가 솔선수범하여 기업문화로 정착 시키면, 이는 결국 기업의 경쟁력이 된다. GE의 사회공헌 활동 사례가 이를 뒷받침한다.



미국의 전기, 전자, 컴퓨터 제조 회사인 GE가 운영하는 엘펀(Elfun)은 1928년에 설립된 세계 최대의 자원봉사 조직이다. GE의 요직에 오르면 자원봉사 경력을 가져야 한다는 불문율이 있을 정도다. 엘펀은 주요 임직원들에게 필수코스가 되었고, 퇴직자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들까지도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아웃도어 의류회사인 팀버랜드(Timberland)는 직원들에게 유급휴가까지 지원하며 사회봉사 활동을 독려한다. 직원들 각자의 전문지식과 기술을 비영리 단체에 전수하도록 3~6개월의 유급 휴가인 '봉사 휴가'를 만들어 재능을 기부하도록 함으로써 봉사의 차원을 끌어 올린 것이다. 성공은 선행을 통한 것이라는 팀버랜드의 생각은 환경분야에도 적용된다. 지속가능한 에너지원 발굴에 노력하고, 일부 제품에 유기농 순면을 사용하며, 제품 상자에도 100퍼센트 재활용 마분지를 사용하고 있다.



델 컴퓨터 <지속가능성을 위한 컴퓨터 수거>

마이클 델은 말한다. "오래 살아남고 싶은 기업은 장기적인 안목부터 가져야 합니다." 그의 말을 입증하는 것이 바로 미국의 컴퓨터 제조회사인 델(Dell)의 '지속가능성 프로그램'이다. 델 컴퓨터는 브랜드와 상관없이 모든 컴퓨터와 부품을 소비자로부터 직접 수거하여 필요한 곳에 기부하거나 재활용한다. 뿐만 아니라 제품의 설계 단계에서부터 환경에 미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탐스슈즈 <한 켤레를 사면, 한 켤레를 기부>

2006년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시작한 탐스슈즈(TOMS Shoes)는 소비자가 한 켤레의 신발을 구입하면 다른 한 켤레의 신발을 제3세계의 어린이들에게 기부하는 일대일 기부 공식을 도입해 세계적인 브랜드로 성장하는 발판으로 삼았다. 제품이 특이하거나 혁신적이지는 않았으나 신발 한 켤레로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다는 점이 크게 작용했다. 현재 탐스슈즈는 30여 개국에 지부를 둔 글로벌 브랜드로 자리 잡았다. 탐스슈즈는 고객들이 이제 가격과 품질, 브랜드의 인지도 등 상품 자체의 경쟁력 이외에 좀 더 고차원적인 가치를 찾아 움직인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되었다.

##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은 또 하나의 경쟁력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은 차별화된 경쟁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 기업이 지역사회와 소비자에 대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신뢰를 전하는 사업을 펼칠 때 고객은 다른 경쟁업체를 뿌리치고 그 기업을 선택하게 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일련의 활동들이 기부와 같은 나눠주기식 이벤트로 끝나선 안 된다는 점이다. 투자 대비의 효과를 기업과 사회가 지속적으로 함께 얻어내려면 혜택을 입은 사회 구성원 혹은 단체가 다시 기업을 살찌우는 시스템이 되어야 한다. 일방적으로 give로 종결되는 활동은 결코 장기간 지속될 수가 없으니 말이다.





왼쪽부터  
고려용접봉(KISWEL) 서울영업팀 정진민 팀장 / SIMPAC홀딩스 ENG부문 지원팀 이종서 과장 / 고려용접봉(KISWEL) 이기홍 부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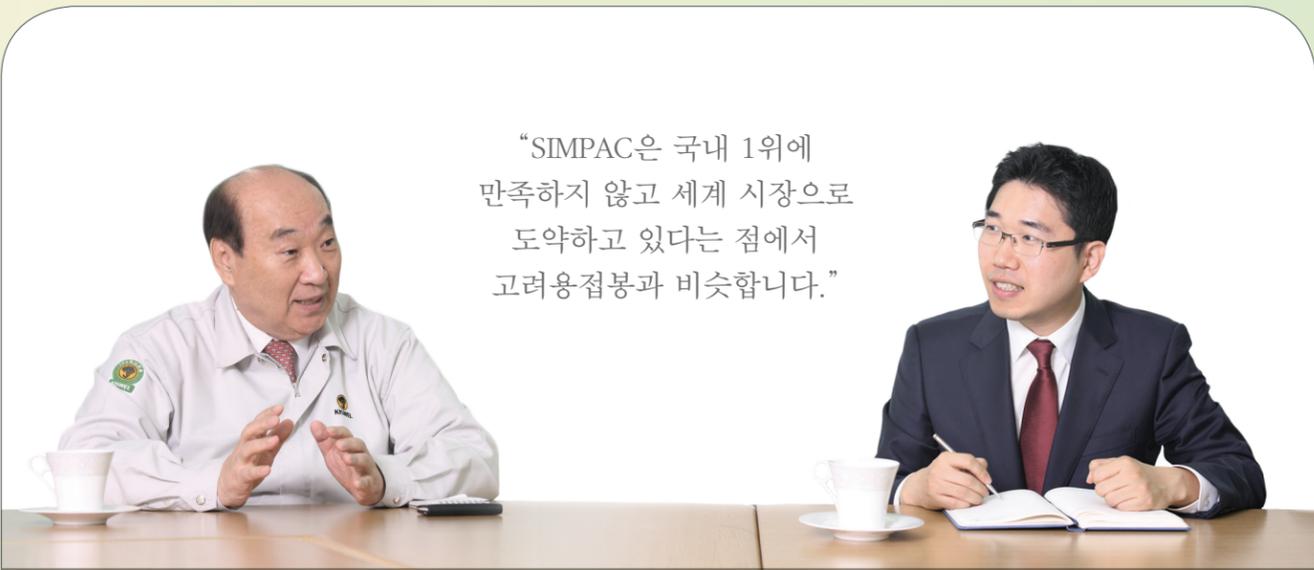
SIMPAC홀딩스 ENG부문과 고려용접봉(KISWEL)

## 국내 최고를 넘어, 세계적 기업을 목표로!

SIMPAC홀딩스 ENG부문과 지속적으로 거래하며 신뢰를 다져온 고려용접봉(KISWEL). 남산이 훤히 올라다 보이는 서울의 중심지 중구 주자동에 고려용접봉 서울사무소가 위치해 있다. 오랜 역사와 위상을 자랑하듯 우뚝 솟아 있는 건물이다. 지난 11월 6일, SIMPAC홀딩스 ENG부문 지원팀 이종서 과장이 이곳을 방문해 고려용접봉 이기홍 부회장, 서울영업팀 정진민 팀장과 함께 협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고려용접봉은 '프레스' 시장의 1인자인 SIMPAC처럼 '용접재료' 분야에서 따라올 곳이 없는 독보적인 존재다. 오직 용접재료 분야만을 고집하며 달려온 외길 역사가 40여 년. 서울사무소 5층 회의실에서 만난 이기홍 부회장은 환한 얼굴로 방문 일행에게 일일이 악수를 청했다. 현장을 많이 다니는 듯, 회사 점퍼를 입은 이 부회장은 매우 활동적인 모습이었다. 그는 "인터뷰는 난생 처음 해보는 것이라 떨립니다."라며 말문을 연 뒤 고려용접봉에 대한 소개를 했다.

"1969년 창립된 고려용접봉은 국내 시장보다 해외 시장에서 더 큰 발판을 다져왔습니다. 그만큼 해외에서 거둬들이는 수익이 크다고 할 수 있죠. 제품 총 생산량의 3분의 1을 국내에서, 해외에서 나머지 3분의 2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포항, 부산 등 국내에 6개의 공장이 있고 해외는 중국 대련, 말레이시아, 유럽 룩셈부르크, 미국 켄터키 등지에 현지 공장이 있습니다. 해외 공장들을 다 시찰하려면 지구 한 바퀴를 도는 것이니 1년이 금세 지나가지 않을까 합니다.(웃음)"



“SIMPAC은 국내 1위에 만족하지 않고 세계 시장으로 도약하고 있다는 점에서 고려용접봉과 비슷합니다.”

고려용접봉(KISWEL) / 이기홍 부회장

SIMPAC홀딩스 ENG부문 지원팀 / 이종서 과장

**“좋은 제품을 좋은 가격에” 상호 신뢰 쌓으며 ‘시너지 창출’**

SIMPAC홀딩스 ENG부문은 지난 2011년 8월부터 고려용접봉과 본격적으로 거래를 시작했다. 이종서 과장은 “SIMPAC홀딩스 ENG부문은 철강금속조립구조제 전문제조 업체로서 SIMPAC 프레스 구조물 제작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핵심 부재료인 용접봉을 고려용접봉에서 조달하고 있습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고려용접봉의 가장 큰 강점으로 ‘품질’을 꼽았다.

“어떤 제품이든 가장 중요한 것이 품질입니다. 고려용접봉의 품질이 곧 SIMPAC 프레스의 품질로 이어지기 때문에 무엇보다 고려하는 부분이지요. 이점에 있어서 고려용접봉은 믿을 수 있는 품질의 제품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납기를 정확히 준수하며 납품하기에 늘 신뢰가 갑니다. 그 외에도 유통 구조를 거치지 않고 제조사와 직접 거래하는 것이므로 어떠한 니즈나 문제도 바로 해결할 수 있어 장점이 많다고 하셨습니다.”

고려용접봉 정진민 팀장은 “담당 직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SIMPAC은 거래 관계가 매우 깔끔한 회사라고 평합니다.”라고 화답했다. “기업간의 거래관계부터, 계획, 발주, 입고, 결제까지. 일련의 모든 업무처리가 깔끔해 믿음이 갑니다. 타 회사에 영입할 때면 SIMPAC과 거래한다고 당당히 말합니다. 그 정도로 SIMPAC은 어디를 가나, 신용을 얻을 수 있는 회사라 할 수 있죠. 그리고 SIMPAC에서도 고려용접봉 제품을 좋게 평가해주시니 우리 역시, 자신감을 갖고 납품할 수 있어 기쁩니다.”

**고려용접봉의 품질이, 곧 SIMPAC의 품질로 이어져**

‘SIMPAC그룹 사보’와 인터뷰를 한다고 해서 이기홍 부회장은 ‘SIMPAC’에 대해 많이 공부하고 준비해왔다. 그는 SIMPAC의 비전 등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다들 놀랄 정도로 자세히 이야기 했다.

“제가 알기로, SIMPAC은 프레스 분야에서 1위 기업입니다. 그리고 국내 1위에 만족하지 않고 세계적인 기업으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고려용접봉과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우리도 현재 국내에서 용접재료 분야 1위이고 해외에서는 더 큰 도약을 꾀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의 순위가 어떻게 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세계에서 최고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내 시장에만 머무르면 발전에 한계가 오기 마련이거든요. SIMPAC의 회사 경영 이념과 비전을 보니 이러한 면에서 우리와 같은 행보를 하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이어서 그는 “최고의 품질을 지향하는 ‘품질 경영’과 ‘투명 경영’, ‘지식 경영’, ‘고객 가치 경영’이 우리 회사의 비전인데, SIMPAC 역시 이를 실천하고 있는 기업이라 더욱 믿음이 갑니다.”라며 SIMPAC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을 드러냈다. 현재 세계 120여 개국에 ‘코끼리표’ 고려용접재료를 수출하고 있는 고려용접봉은 세계 속의 브랜드로 한국의 긍지를 높이면서 21세기 패러다임에 맞는 세계적 기업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종서 과장은 “고려용접봉은 품질, 납기, 비용 등 모든 측면에서 파트너십을 발휘하는 협력사로서 그동안 쌓아온 신뢰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지금과 같이 유기적으로 협업한다면 더욱 상생하는 길을 모색할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라고 말했다. 이에 정진민 팀장은 “SIMPAC이 우리 제품을 지속적으로 사용해줘서 감사합니다.”라면서 “앞으로도 좋은 품질을 계속 유지할 것이고, 나아가 SIMPAC의 프레스가 경쟁력을 갖도록 ‘경쟁력 있는 단가’를 책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관계를 이어가길 바랍니다.”라고 답했다. 단순히 협업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서로에게 시너지 효과를 주며 ‘상생’하는 SIMPAC홀딩스 ENG부문과 고려용접봉(KISWEL), ‘국내 최고를 넘어, 세계적 기업’을 목표로 끊임없이 도약하고 있다’는 점에서 두 회사는 많이 닮은 모습이었다.





유대감 다지며 '품질과 생산량'  두 마리 토끼 잡을 것!

SIMPAC 생산팀 정진희 대리, 박정호 사원 & SIMPAC홀딩스 ENG부문 생산팀 정제린 대리

향긋한 차 한 잔을 마시며 누군가와 담소를 나누고 싶은 계절이 바로 가을이다. 가을빛 '감성'으로 물든 10월의 마지막 날 오전. 햇살이 비치는 SIMPAC 사옥에서 따스한 만남이 있었다. SIMPAC 생산팀 정진희 대리와 박정호 사원, SIMPAC 홀딩스 ENG부문 생산팀 정제린 대리가 만나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었다. 서로에 대한 이해와 배려, 웃음이 있던 '담소의 장'으로 가보자.

SIMPAC 생산팀과 SIMPAC홀딩스 ENG부문 생산팀은 업무상 긴밀한 유대관계를 가지고 있다. SIMPAC홀딩스 ENG부문 생산팀은 철판을 절단하고 용접, 열처리(소둔), 쇼트 등의 작업을 담당하며, 제관 작업한 철판(프레임)을 SIMPAC에 납품한다. 즉 1, 2차 공정은 SIMPAC홀딩스 ENG부문 생산팀에서, 형상을 만드는 가공 작업(3차 공정)은 SIMPAC 생산팀에서 담당한다. 가공이 완료되고 조립을 하면 프레스 제품으로 완성되는 것이다. 두 회사의 업무는 공정상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매우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정제린 대리는 "원래 한 회사로 있다가, 2005년 검단공장이 들어서면서 분리되었고 2010년부터 검단공장에서 1, 2차 공정을 전담하게 되었습니다."라고 설명했다. 박정호 사원은 "우리는 양사 간의 원활한 업무 조율을 위해 중간 관리 역할을 하고 있는 셈이죠."라고 덧붙였다.

Work Together



함께 손발을 맞춰 좋은 점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정제린 대리 \_ 다른 프레스 제조 회사들의 경우 전량 외주 제작을 하는데, SIMPAC은 20%만 외주 제작이며 중요한 공정 대부분을 자체적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SIMPAC그룹이라는 한 지붕 아래 한 부서에서 업무를 총괄하기에 관리가 용이하지요.



정진희 대리 \_ SIMPAC그룹이라는 큰 울타리 안에 함께 있는 회사에 발주하는 것이라 공생한다는 느낌이 강합니다. 타 업체라면 아무래도 자사의 이익을 우선시하게 되는데 우리는 소속감과 유대감이 있어 그만큼 손발이 착착 맞는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박정호 사원 \_ 타 업체와 거래하다 보면 알게 모르게 불만이 생길 수도 있지만 우리는 'SIMPAC의 품질 개선'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위해 함께 노력하니 유대관계가 남들보다 강하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상대방이 요청한 것을 이해하고 성심성의를 다해 맞춰주려고 하게 되지요.



Work Together

업무를 진행하면서 보람을 느끼는 순간은 언제인가요?



정제린 대리 \_ 과거에는 생산량을 확대하는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면 지난해 중반부터는 품질 향상에 보다 심혈을 기울이는 분위기로 바뀌었습니다. '양'보다 '질'을 우선시하게 된 것이라 볼 수 있죠. SIMPAC홀딩스 ENG부문 입장에서는 도면에 있는 대로 제작하면 되지만, 같은 그룹 안에 있다는 소속감이 있기에 더욱 '품질'을 생각하게 됩니다. SIMPAC에서 못하는 것을 우리가, 우리가 못하는 부분을 SIMPAC에서 해주며 상호 보완하는 관계이기에 같이 발전하고 있다는 긍지와 보람이 큼니다.



정진희 대리 \_ 함께 협력하면서 큰 사고와 불량 없이 조립을 잘해 온 것이 가장 큰 보람입니다. 후공정이 잘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 가공의 주 업무이기에 매우 중요하죠.



팀워크나 유대감을 높이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나요?

정진희 대리 \_ SIMPAC홀딩스 ENG부문 직원들의 경조사를 꼭 챙겨서 방문하는 편입니다. 회사는 다르지만 둘 다 인천 지역에 위치하며 같은 일을 한다는 동질감이 있기에 더욱 그렇죠. 기본적으로 한 배를 탄 팀원이라는 생각으로 협력하고자 합니다.

박정호 사원 \_ 가능한 서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 나누고 고충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합니다. 어떤 부분이 힘들고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대화를 통해 합의점을 찾아가는 것이지요. 각자의 주장만 하지 않고 이해하려고 노력하니 그만큼 일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정제린 대리 \_ 가장 좋은 방법은 직접 만나서 소통하는 것 아닐까요? 비교적 두 회사가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어 오가면서 업무를 협의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발생하면 자체적으로 판단하기보다 함께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해결할지 상의하는 것이지요. 앞으로는 지금보다 자주,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검단에 방문해 애로사항을 나누고 일정을 조율하면 소통을 더욱 원활하게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내년에 계획한 일이나 개인적인 포부가 있다면요?



정제린 대리 \_ 품질에만 집중하다 보면 생산량 저하라는 결과가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품질과 생산량'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전문 사외교육을 적극적으로 참여해 직무수행 능력을 한 단계 올림으로써 스마트하게 일할 수 있는 SIMPAC인, 스스로가 리더가 되는 SIMPAC인이 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정진희 대리 \_ 저에게 주어진 업무들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모든 일을 차질 없이 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박정호 사원 \_ 생산 납기를 100% 준수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론과 함께 기술도 터득하여 이 분야에서 최고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공부에 매진할 계획입니다.

- 01
02
03
04
05
06
07

볼게 몰드는 가을 산과 함께  
**깊어가는 SIMPAC 사랑!**

**SIMPAC 창립 12주년 기념 '2013 한마음 전진대회' 개최**

깊어가는 가을, 산하는 울긋불긋 아름다운 자태를 뽐낸다. 11월의 첫 주 토요일, 가을비가 뜻 깊은 이날의 행사를 축하하는 듯 보슬보슬 내린다. 이날 아침, 250여 명의 SIMPAC홀딩스와 SIMPAC 임직원들이 산행 트레킹을 시작으로 SIMPAC 창립 12주년을 기념하는 '2013 한마음 전진대회'를 가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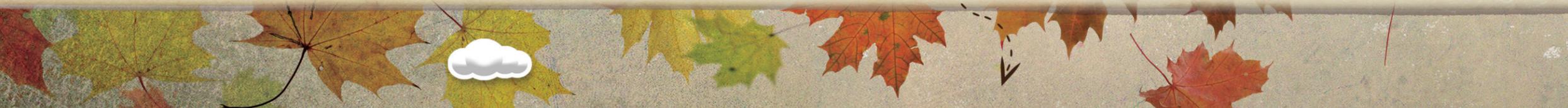
지난 11월 2일, 가을빛에 어울리는 색깔의 옷을 맞춰 입은 SIMPAC인들이 한데 모였다. 이날 행사는 SIMPAC 창립 12주년을 기념하여 SIMPAC홀딩스와 SIMPAC 임직원들이 함께 북한산 트레킹을 하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서울 북부와 근교에 광활하게 걸쳐있는 북한산 입구 중, 경기도 양주시 장흥면 '교현 탐방지원센터'에서 출발한 SIMPAC인들은 환한 표정과 가벼운 마음으로 완만한 산행 길을 따라 걸었다. 단풍에 물든 북한산은 고즈넉하고, 붉고 노란 잎들은 비에 젖어 더욱 선명한 빛깔을 띠고 있었다. 마침내 정상에 다다랐을 때에는 기분 좋게 상기된 얼굴들이 모여 아름다운 산을 배경으로 단체 사진도 찍었다.



**비 오는 날의 북한산 트레킹, 운치 있는 가을 정취 만끽**

SIMPAC 생산팀 김진호 차장은 "비가 오는 날 행사를 치르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오늘은 여러모로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산길을 걸으며 만끽하는 산의 풍경이 무척이나 아름다웠습니다. 비가 와서 오히려 더 선명한 가을 단풍을 즐길 수 있고, 암벽과 안개가 어우러지니 신비로움이 느껴지네요. 무엇보다 동료들과 함께 하니 더욱 의미가 있는 산행이었습니다." 보통은 곳은 날씨가 산행의 걸림돌이 되지만, 내리는 비도 긍정적으로 여기는 SIMPAC인의 밝은 에너지가 느껴졌다.

일행은 '우이령길'을 거쳐 서울 강북구 우이동 '우이탐방지원센터'에 도착하며 트레킹을 마쳤다. 이어 중식과 함께 친교의 시간을 보낼 연회장으로 이동했다. 우이동 계곡 옆 음식점에 자리 잡은 임직원들은 담소를 나누며 목을 축였다. 퇴직을 앞둔 이봉식 계장은 "82년에 입사해 청춘을 바친 회사가 SIMPAC"이라면서 "오늘이 동료들과 함께 하는 마지막 산행이라 지금 이 자리가 참 소중하고 한편으로 아쉬움이 가득합니다."라고 말했다. 진한 아쉬움을 달래듯, 이봉식 계장은 입사 동기인 유병기 사원과 어깨동무하며 밝은 웃음을 지어 보였다.





**개성 넘치는 '장기자랑'에 환호와 폭소 가득**

불판 위에는 지글지글 삼겹살 고기가 익어가고 SIMPAC인들은 동료와 주거니 받거니 술잔을 나누면서 즐거운 모습이다. 연회장 앞의 무대에서는 팀 별 장기자랑이 시작되었다. 젊은 남자 직원들이 과격적인 의상으로 춤추고 노래하며, 좌중에 웃음을 선사하는 무대를 펼쳤다. 나중에는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앞으로 나와 흥겨운 댄스 타임이 벌어지기도 했다.

사회자가 심사위원인 최진식 회장에게 "강력한 대상 후보가 있는지요?" 물으며 마이크를 건넸다. 최진식 회장은 "대상후보는... 조립 1만 만 빼고, 다 대상 후보예요!"라고 답했다. 그의 재치 있는 말에 다들 크게 웃음이 터졌다. 열띤 분위기를 이어 받아 최진식 회장이 '토요일은 밤이 좋아'를 열창했다. 직원들이 무대에 우르르 나와 백댄서를 자처하며 흥겨운 춤 마당이 벌어졌다.



**"여러분, SIMPAC에서 일흔까지 갑시다!"**

노래가 끝나고 최진식 회장은 올해 72세의 홍명문 축탁을 자랑스럽게 소개했다. "여러분, 우리도 홍명문 축탁처럼 SIMPAC에서 일흔까지 갑시다!"



좌중에 환호와 박수가 이어졌다. 홍명문 축탁은 1975년에 입사해 근 40년을 SIMPAC에 몸담은 터줏대감. 대통령 표창을 받은 명장으로서 지금도 축탁사원으로 SIMPAC 품질관리실에서 근무하고 있다. 그는 짧게 소감을 밝혔다. "회사에서 나오라고 할 때까지 다녀야지요. 지금도 건강하고 충분히 일할 힘이 있으니, 참 감사한 일입니다."



분위기가 점차 무르익어 가는 가운데, 장기자랑 수상 발표에 이은 행운권 추첨을 끝으로 '2013 한마음 전진대회'가 무사히 막을 내렸다. 동료들과 가을 산의 정취를 만끽하며, 함께 웃고 즐긴 시간 속에서 'SIMPAC인'으로서의 열정과 자부심도 커지지 않았을까. 저마다의 즐거운 시간으로 이날은 기억될 것이다.





# 가을 바다의 멋진 풍경으로 떠난 그들의 특별한 가족 여행

- SIMPAC메탈 전기로 B조 이현진 조장 가족

전국의 산하에 붉은 빛 단풍의 향연이 펼쳐지는 가을. 그야말로 지천에 울긋불긋한 카펫을 깔아 놓은 듯하다. 이렇게 아름다운 10월, SIMPAC메탈 전기로 B조 이현진 조장 가족이 동해로 가을 여행을 떠났다. 아내 김현숙 씨와 아들 준승이가 함께 한 이번 여행은 특히 결혼 6주년을 기념한 것이라 그 의미가 크다. 탁 트인 바다를 앞에 두고 여유를 만끽하는 가족의 얼굴엔 웃음이 떠날 줄 몰랐다.

## 6주년 결혼기념일에 맞춰, 가족 모두가 좋아하는 바다로

가을이 온 누리에 색채의 마법을 부린 듯 신비롭다. 여기에 따스한 햇살과 기분 좋은 바람이 피부에 스친다. 여행하기 좋은 계절이면 바로 가을 아닌가. 화창했던 지난 10월 21일 오후,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에 위치한 '대명 리조트 솔비치'에 이현진 조장 가족이 도착했다. 가족은 숙소에 짐을 풀어 놓고 가벼운 옷차림으로 야외로 나섰다. 다섯 살 준승이는 나이답게 얼굴 가득, 싱글벙글 웃음을 띄우며 신이 났다. 딱 그 나이대의 개구쟁이 같은 발랄한 모습이다. 간만의 나들이에 설레기는 엄마, 아빠도 마찬가지다. 가족은 나란히 손을 잡고 바다 쪽을 향해 걷는다. 잠시 후 눈앞에 광활한 동해 바다가 펼쳐지자 준승이가 '와'하면서 달려나간다.



사랑스러운 아내 현숙 씨와 개구쟁이 아들 준승이



성실한 남편 이현진 조장

"아빠, 바다 봐요"  
"응, 그래! 갈매기도 날아다니네!"  
"여기 돌도 있고 모래도 있어요!"  
준승이는 바다 풍경이 무척 신기한 모양이다.  
"아이가 한창 조잘조잘 말을 많이 할 때라, 표현을 잘하네요. 한 번씩 나들이 나오면 아이가 무척 좋아해서 가족 여행을 자주 다니고 싶어요."  
이번 여행은 특별히 결혼기념일에 맞춰, 가족 모두가 좋아하는 '바다'로 떠나 왔기에 마음이 더욱 설렌다

**바쁜 일상 속, 가족과 함께 멀리 떠나올 수 있어 특별한 여행**  
시원한 바닷바람을 맞으며 모래사장을 거니는 가족의 모습이 단란해 보인다. 포말처럼 하얀 파도가 부서지며 다가오고 가을 햇살에 반짝이는 파란 바다가 눈부시게 아름답다.  
"결혼 전에, 아내에게 1년에 한 번은 꼭 여행을 떠나자고 약속했는데 아이를 키우고 저도 일하다 보니 그동안 여행을 다닐 여유가 없었어요. 결혼 6년 만에 이렇게 멀리 강원도로 나들이 오니 정말 상쾌한 기분이 들고 행복합니다."  
이현진 조장은 무엇보다 아내와 아이가 좋아하는 모습을 보면서 무척이나 흐뭇하다고. 아빠는 파란 바다를 배경으로 아이와 아내를 세우고 사진을 찍는다. 뭐가 그리 좋은지 이들은 연신 웃음을 터뜨린다.



**“남편은 일터에서도 가정에서도 성실한 사람”**

결혼 6년 차 동갑내기 부부. 이들에게 서로는 어떤 아내와 남편일까.

“남편은 우리에게 늘 든든한 존재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성실하고 추진력도 있고요. 아이와 잘 놀아주고 집 안일도 나서서 해주니 더 이상 바랄 게 없네요, 사실 연애할 때는 정말 많이 싸웠거든요. 그런데 결혼을 하고 일터에서도 자리를 잡게 되니 서로를 더 이해하게 되고 돈독한 사이가 되었어요.”

현숙 씨는 “남편이 포항(SIMPAC메탈로이)에서 근무할 때도 좋았지만 지금의 당진(SIMPAC 메탈) 일터로 옮기고 나니 일적으로 더욱 안정감을 갖게 된 것 같아 옆에서 보는 이로서 마음이 좋아요. SIMPAC이라는 이름이 우리 가정에게 주는 믿음이랄까,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커지는 것 같아요.”라고 말한다.

이현진 조장은 “지금까지 나를 믿고 따라와 준 아내에게 늘 감사합니다. 일하느라 바빠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부족했는데 이렇게 탁 트인 곳에 오니 저절로 마음이 열리네요.”라고 말했다. 평소에는 서로에게 하지 못했던 말을, 이곳에서 허심탄회하게 털어 놓으니 아마도 저 푸른 바다 덕분인 것 같다. 아름다운 대자연에 있다 보니 마음도 너그러워지는 것일까.

“준승이 엄마이자, 아내, 또 며느리로서 지금처럼만 해주면 바랄 게 없습니다. 사실 아내에게 미안한 점이 많습니다. 제가 무뎠다 해서 표현을 잘하지 못하는 편이라 스스로도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가족을 사랑하고 관심을 기울이는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SIMPAC인으로서, 그리고 가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엄마, 아빠를 빼 닮아 웃는 모습이 예쁜 준승이는 저 넓은 바다가 참 좋다. 가장 좋아하는 놀이도 ‘물놀이’란다. 또 “아빠가 놀아줄 때 제일 좋아요.”라고 한다. 그래서 오늘 바닷가에서 아빠와 함께 하는 준승이는 물 만난 고기 마냥 즐겁다.  
화사한 가을, 특별한 날에 가족과 함께 한 동해 여행. 이날 여행은 다섯 살 준승이에게도, 엄마 아빠에게도 행복한 기억으로 남을 것이다.



# SIMPAC NEWS

## SIMPAC그룹



### 창립 12주년 기념식 행사

□  
 지난 11월 1일, 가을 햇살이 내리쬐는 가운데 SIMPAC메탈로이 포항 본사 강당에서 SIMPAC그룹 창립 12주년 기념식이 열렸다. 최진식 회장을 비롯한 각 계열사 사장 및 임직원들이 한 자리에 모여 반가운 인사를 나누며 이날 행사가 시작되었다. 최진식 회장은 기념사를 통해 "지난 12년의 세월을 같이한 임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며, 현재와 미래의 더 큰 성장을 위해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또한 "앞으로 새 계열사를 가족으로 맞이하여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도록 다 함께 협력하자"는 당부로 기념사



를 마쳤다. 이어진 장기근속 포상에서는 총 45명의 대상자(SIMPAC홀딩스 ENG부문 3명, SIMPAC 19명, SIMPAC메탈로이 22명, SIMPAC메탈 1명) 중 15명에 대한 시상식이 있었다. 시상 후 최진식 회장은 대상자들에게 약속을 권하며, 그동안의 노고를 치하하였다. 행사의 마지막 순서는 창립 12주년을 기념하는 케익 커팅식으로 최진식 회장 및 각 계열사 사장단, 그리고 근로자 대표들이 하나되는 마음으로 케익을 자름으로써 이날 행사가 마무리되었다.

## SIMPAC홀딩스

### 최진식 회장, 박근혜 대통령 베트남 국민 방문 및 인도네시아 방문 경제사절단 동행



□  
 지난 9월 7일부터 4박 5일간 진행된 박근혜 대통령의 베트남 국민 방문에 역대 최대 규모의 경제사절단이 꾸려졌다. SIMPAC그룹 최진식 회장을 비롯한 중소기업인이 40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대기업 18명, 경제단체 및 협회 12명, 금융인 5명 등이 참석했다. 이는 지난 6월 중국 국민방문 당시 인원을 뛰어넘는 역대 최대 규모다. 박 대통령이 미국과 중국, 러시아에 이어 베트남을 선택한 것은 동남아 지역의 정치·경제적 거점 국가인 베트남을 '세일즈 외교'의 시작점으로 삼겠다는 뜻이라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박 대통령의 베트남 국민 방문은



경제협력을 공고화한 측면과 정치적, 문화적 우호 증진이라는 측면에서 큰 성과가 있었다. 특히 양국 정상은 공동성명을 통해 내년 중 높은 수준의 포괄적 자유무역협정(FTA)의 체결을 목표로 협상을 가속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1992년 수교 이후 40배가 증가한 양국의 교역 규모는 더욱 늘어날 수 있게 되었다. □ 대한상공회의소는 박근혜 대통령의 인도네시아 방문에 동행하는 경제사절단을 지난 10월 10일부터 2박 3일 일정으로 인도네시아에 파견했다.

경제사절단은 주요 경제단체장, 현지진출 기업, 유관기관 대표 등 71명으로 꾸려졌으며 민간심의위원회를 통해 선정된 협회·경제단체 10명, 대기업 17명, 중소기업 35명, 공공기관 9명이 참가했다. 구성원은 SIMPAC그룹 최진식 회장을 비롯해 강호문 삼성전자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한덕수 무역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현정은 현대 회장, 최병오 패션그룹 형지 회장, 홍재성 JS코퍼레이션 회장, 이민재 한국어성경제인협회 회장 등으로 이루어졌다.

대한상공회의소와 인니상공회의소의 주최로 10월 11일 자카르타의 한 호텔에서 열린 경제인 오찬에는 경제사절단과 운상직 산업부 장관 등 국내 측 인사 150여 명과 하타 라자사(Hatta Rajasa) 경제조정부 장관, 기타 위르자완(Gita Wiryawati) 무역부 장관, 모하메드 술레만 히다얏(Mohamad Suleman Hidayat) 산업부 장관, 수르요 밤방 술리스토(Suyo B. Sulisto) 인니상공회의소 회장 등 인도네시아 측 인사 100여 명이 함께 했다.

## SIMPAC



### 2013년 임금협상 무교섭 위임

□  
 SIMPAC은 2013년 임금협상을 무교섭으로 타결하였다. SIMPAC노동조합이 2013년도 임금협상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회사에 위임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함에 따라, 노사는 지난 8월 23일 '2013년도 임금협상 무교섭 위임' 조인식을 가졌다. SIMPAC은 1987년 노조 설립이래 25년간 무분규의 전통을 이어오고 있다. 이번 2013년 임금협상과 관련하여 문재식 노조위원장도 "회사가 살아야 내가 산다는 마음가짐으로, 임직원 모두 힘을 합쳐 품질향상에 힘을 쏟아, 어려운 경영상황을 극복하자"며 무교섭 타결에 대한 소감을 밝혔다. 전지중 대표이사는 "노사가 불필요한 에너지를 낭비하기 보다는, 고객만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품질 및 기술력 향상에 총력을 기울이자"며 각오를 다졌다.



### 기계주물 제조기업 봉신 인수 MOU

□  
 SIMPAC은 지난 9월 30일 기계주물 제조기업 봉신과 인수합병(M&A)에 대한 MOU(양해 각서)를 체결했다. 이번 MOU에 따라 SIMPAC은 3차 배정 유상증자 형태로 봉신의 최대주주가 될 전망이다. 봉신은 80여 년간 산업기계 및 공작기계를 생산하고 있는 기업으로 주물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특히 봉신은 고품질의 주물을 필요로 하는 산업기계 메이커들을 주요 거래처로 보유하고 있으며 2012년 매출액 740억 원을 기록했다. 봉신은 2006년 해운업에 진출하면서 재무상태가 악화됐고 2010년 워크아웃에 돌입, 2011년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해 매각을 진행해온 바 있다. 이에 대해 MOU 관계자는 "보유자금을 바탕으로 기존 사업과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인수합병을 지속적으로 검토한 결과 봉신을 인수하기로 최종 결정했다"면서 "발전 가능성이 높지만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은 봉신의 인수로 SIMPAC의 글로벌 사업다각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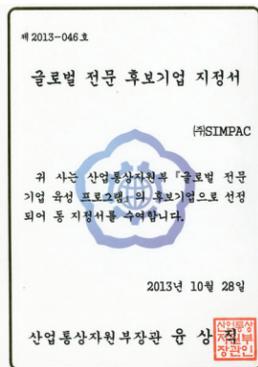
### 봉신 762억 원에 인수, 본 계약 체결

□  
 SIMPAC은 10월 29일 봉신과 인수합병과 관련한 투자계약 본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다. 인수대금은 총 762억 원으로 계약금은 인수금액의 10%인 76억 원이다. SIMPAC은 인수대금 잔금 납입을 집회 5영업일 전에 납입할 계획이다. 또한 회생회사 회생계획 변경 계획안

제출 및 회생 계획에 따른 변제대상, 회생채무 변제, 회생 절차 종결 등의 절차를 예정이다. SIMPAC은 봉신 인수를 통해 기존 프레스 제조업과 봉신의 기계 주물업 간의 시너지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SIMPAC NEWS

## SIMPAC



### 산업통상자원부 '글로벌 전문 후보기업' 지정

산업통상자원부는 SIMPAC 등 중소·중견기업 46개를 '글로벌 전문 후보 기업'으로 지정했다고 지난 10월 28일 밝혔다. 정부는 향후 5년 내에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올라설 잠재력 있는 기업들을 글로벌 후보 기업으로 선정해 각종 지원을 하고 있다.

김재홍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은 이날 SIMPAC을 포함한 기계장비, 전자부품, 금속화학 등 5개 업종 46개 기업에 글로벌 전문 후보 기업 지정서를 전달했다. 이들 기업은 전략, 금융, 인력, 마케팅 등 분야에서 정부 종합 지원을 받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후보 기업들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겪는 '성장통'을 극복할 수 있도록 글로벌 투자은행(IB), 법률회사, 컨설팅회사 고위직 출신 전문가를 참여시켜 글로벌화 전략 수립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 SIMPAC메탈로이



### 포스코 제철소장 '동반성장 참여기관' 격려 방문

지난 9월 24일 포스코와 포항철강공단이 주관하는 'QSS 혁신허브 3기'로 개선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SIMPAC메탈로이 1공장에 포스코 이정식 포항제철소장 등 관계자들이 방문하여, QSS활동이 진행되고 있는 현장을 둘러보았다. 이날 방문은 당사 1공장 및 포항남부보건소 등 'QSS 혁신허브 3기'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 및 관공서들을 격려하기 위한 행사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다. 이날 이정식 포항제철소장은 당사 2공장의 성공적 QSS활동 정착과 임직원들의 노력 및 회사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볼 때 1공장의 QSS활동 역시 무난하게 정착할 것이라는 말과 함께 임직원의 노고에 감사사를 표했다.

## SIMPAC메탈로이



### 직원화합 등반대회

늦더위가 기승을 부리던 9월 초부터 단풍이 빨갛게 물들기 시작하는 10월 중순까지 총 6차례, 130여 명의 SIMPAC메탈로이 전 직원이 참여한 '직원화합 등반대회'가 있었다. 각자의 업무를 정리하고 난 뒤 회사 인근의 운제산(雲梯山) 아래에 모여 안전과 화합을 위한 산행을 시작하였다. 정상 인근에서 마시는 시원한 정상수에 걱정과 스트레스는 날아가고, 한층 더 가까워진 동료애를 느낄 수 있었다.

노을이 붉게 물들 즈음에는 하산하여 따뜻한 파전과 두부, 그리고 시원한 동동주를 맛보며 등산의 피로를 씻어내고 하나되는 시간을 가졌다. 송효석 사장은 모두가 즐겁게 산에 오를 때와 같이 밝게 웃는 얼굴로 회사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말하며, 직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다.

# 다른그림찾기



다른그림찾기 지난 호 당첨자

SIMPAC 인사총무팀 이해정 사원 | 생산팀 조립1반 김용열 조장  
 SIMPAC메탈로이 전기로 B조 민경철 사원 | 전기로 C조 김용호 반장  
 2공장 가공반 이상호 사원

윗쪽 사진과 다른 점이 아래쪽 사진에 네 군데 있습니다.

정답을 아시는 분은 오른쪽 답지에 체크하여 11월 30일까지 각 사 사보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세요. 정답자 중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

## “ 당신을 칭찬합니다 ”

### SIMPAC메탈로이 2공장

공무반 우태보 주임이 김영돈 사원에게

칭찬하고 싶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같이 근무한지 어느덧 17년의 세월이 흘렀네요. 동갑내기 친구이자 직장동료로서 긴 시간 동안 지켜본 결과, 본인 업무 외에도 마다 않고 소화하는 성실함을 지닌 SIMPAC인입니다. 그리고 지난 몇 년간 사우회 회장으로서 회원들을 포용력 있는 리더십으로 이끌며 화합하게 하는 모습을 볼 때면 여러모로 본받을 만한 친구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와 김영돈 사원은 무언가에 한 번 빠져들면 굉장히 열정적이 된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둘 다 바다 낚시를 좋아해 주말이면 함께 다니곤 했는데, 지금은 제가 낚시를 접고 등산으로 전환하면서 같이 하고 있진 않습니다.

또 예전에는 둘 다 애주가라서 술잔을 기울이며 이런저런 이야기도 나눴는데, 어느 날 갑자기 김영돈 사원이 술을 딱 끊어버려 술 친구를 하나 잃고 말았네요.^^

아쉬움이 크지만 그만큼 결단력 있는 멋진 친구입니다.



## 축하합니다

### SIMPAC메탈 분석반의 좋은 소식 두 가지!

동갑내기 육성오 사원과 김현태 사원의 결혼식이 각각 지난 10월 12일, 13일에 있었습니다.

하루 차이로 평생의 동반자와 화촉을 밝힌 SIMPAC메탈의 일꾼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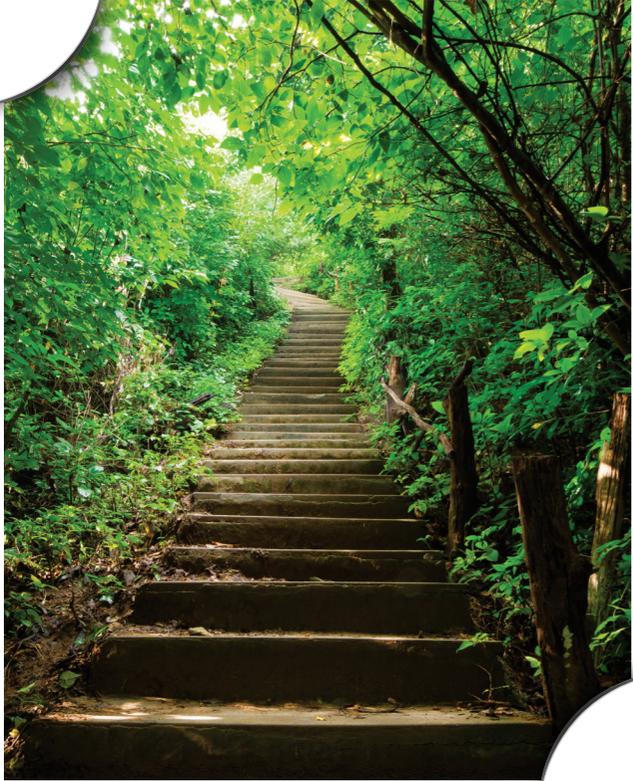
화목하고 평안한 가정 꾸리길 바랍니다.



신랑 육성오 ♥ 신부 노나래



신랑 김현태 ♥ 신부 윤지애



삶은 당신에게  
 온갖 종류의 흠더미를 집어 던진다.  
 우물에서 나오는 비결은 흠을 떨어뜨려  
 그것을 밟고 올라오는 것이다. 모든 문제들이  
 오히려 디딤돌이 되는 것이다.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우리는 아무리 깊은 우물에서도  
 빠져나올 수 있다. 흠을 떨어뜨리고  
 그것을 밟고 올라설 수만  
 있다면 말이다.

- 마벨 카츠의 《호오포노포노, 평화에 이르는 가장 쉬운 길》 중에서 -

## 다른그림찾기 답지

답은 총 네 군데에 있습니다.  
 알아보기 쉽게 표시하여 각 사  
 사보 담당자에게 전달해주세요.

### 〈참가자 정보〉

소속 : .....

성명 : .....





# 작지만 강하다!

종합철강유통 · 가공분야의 강자  
(주)SIMPAC홀딩스 ENG부문



- 2003 (주)SIMPAC이엔지로 사명변경 (SIMPAC그룹으로 편입)
- 2004 기계가공업 시작
- 2005 후판절단 공정이전 (인천 서구 오류동)
- 2010 ISO 9001 품질인증 획득, 검단산업단지로 신축공장 및 사무동 이전
- 2011 제48회 무역의 날 500만불 수출의 탑 수상
- 2013 (주)SIMPAC홀딩스 ENG부문으로 사명변경

## 원재료 수급부터 철강구조물제조까지

(주)SIMPAC홀딩스 ENG부문은 철강구조물제조 및 철강유통 업체로서 20명의 직원이 연 600억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작지만 강한 기업입니다. 인천 검단산업단지에 7,000평 규모의 공장을 준공한 이래 기존 공정인 절단, 용접, 쇼트, 열처리, 도장작업 외에 가공공정을 추가하여 연간 30,000톤 규모의 철강구조물 생산능력을 갖추었으며 원재료 수급부터 철강구조물 제조까지 모든 작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철강유통 · 가공의 모든 것을 책임진다

(주)SIMPAC홀딩스 ENG부문은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한 최적의 소싱과 최상의 가공 서비스를 갖추고 있습니다. 자체 매뉴얼 개발로 체계적인 가공기술을 관리하고 있으며 거래구조 단순화를 통해 수요자와 공급자 모두가 만족하는 혁신적인 경영으로 보수적인 철강 유통 · 가공분야에서 고품질의 제품과 서비스를 인정받고 있습니다.